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이선화*, 석말숙²

¹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²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on successful aging of elderly : The Mediating Effects of Verification ego-resilience

Lee, Sun Hwa^{1*}, Suk, Mal-Sook²

¹Ph.D candidate, Dep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Nazaren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대상은 고양시의 3개동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301명의 노인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으며, SPSS 18.0과 AMOS 21로 분석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종교, 동거인, 직업유무가 사회참여활동에 영향을 나타냈고, 직업의 유무는 성공적 노화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참여활동 하위변수인 자기개발참여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노인의 자아탄력성은 사회참여활동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자기개발참여활동과의 관계에서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사회참여활동과 성공적 노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재조명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social participation of elderly and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impact on successful aging purposes. It surveyed 301 people aged 60 years or older is living in Goyang cit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18,0 and AMOS 21.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graphic variables appeared to affect social-participation activities through the gender, age, religion, partner and occupation, and Only the presence of the occupation showed the effect on successful aging. And in society participation activities sub-variable, only self-development participation showe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uccessful aging. Ego resilience of the elderly appeared to have a full-mediated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successful aging. However, the relationship of self-development engagement activities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ased on these findings, I suggest practical measures for the elderly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successful aging, and was revisited the importance of self-resilience.

Keywords : Elderly residing in the communities, Ego-resilience, Social participation activity, Successful aging.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를 맞이하여 65세 이상 노

인 인구가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의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하게 된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7%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Corresponding Author : Lee, Sun Hwa(Hansei Univ.)

Tel: +82-10-3918-8900 email: show0705@naver.com

Received September 22, 2015

Revised (1st October 28, 2015, 2nd November 4, 2015)

Accepted November 6, 2015

Published November 30, 2015

산업화와 과학기술 및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함께 긴 노후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2]. 즉 퇴직이후 3-40년의 긴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것으로 인한 많은 개인문제와 사회문제가 한 개인의 수준이 아닌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대두되었다[3].

길어진 노후로 인한 노후비용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4]. 노후에 긴 평균수명 보다 건강수명을 길어지게 하는 것이 노후비용과 고령화 문제의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는 곧 노인이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면서 활동하는 주체가 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성공적 노화의 연구가 증가하게 되었다[5].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살펴보면, 노인의 부정적 관점에서 벗어나 신 노년학(Newgerontology) 관점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긍정적이고, 노인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적극적인 대상으로서 노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작용해 가는 활력 있는 노년 상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6].

An[7]의 연구결과에서 “성공적인 노화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역적측면에서 건강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Rowe 와 Kahn[8]의 성공적 노화에서 제시하는 조건은 “1) 낮은 질병률 및 질병에 대한 위험 피해가, 2) 높은 수준의 정신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 유지하기, 3)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인생참여” 라고 정의하였다. 낮은 질병률은 질병예방을 말하며, 인지적 기능, 신체적 기능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위계적인 순서를 제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속적인 사회참여는 다양한 형태의 생산적, 비생산적인 사회참여활동과 인간의 교류를 지속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사회참여활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수단이며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원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9]. 그러므로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광의적 개념에서 연구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변수에 대한 노인의 실정을 반영하는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접근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점이 다른 연구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Rowe 와 Kahn[8]의 이론을 근거 하여 성

공적 노화의 관점에서 본 사회참여활동은 활동이론(Activity theory)에 의해 노년기에도 중년기와 동등한 수준의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것이며, 노년기에 다양한 여가, 종교 활동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10]는 점이다. 노인들은 뭔가를 할 때 가치를 느끼고 기쁨을 얻으며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말하고 있다[11]. 노년기의 사회참여활동 개념을 살펴보면, 노인의 생산활동은 협의의 개념으로 유급 노동시장 참여활동을 의미하며, 광의의 개념은 가사노동, 가족돌봄 및 지역사회참여를 포함한 무급 노동까지 확대한 개념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Ju[9]의 연구이론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하위변수를 경제참여활동(정기적, 비정기적인 일, 노인일자리사업), 사회지원참여활동(자원봉사활동, 가족돌봄활동), 사교친교참여활동(친목모임, 동창회활동, 향우회활동), 종교참여활동, 자기개발참여활동(교육 학습활동, 건강, 문화활동)으로 분류하였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회참여활동 영역을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경험과 성공적 노화 간의 매개요인으로 개인 심리적 변수인 자아탄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성공적 노화는 환경적 요인 못지않게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12].

노인의 자아 탄력성(Resilience)은 노년기 적응과 관련된 주요개념으로 평가되고 있다[13].

이는 '좌절과 스트레스에서 자아통제 수준을 조절하여 유연하게 반응하는 개인의 역동적인 내적능력[14]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환경에서의 적응과 불확실한 조건하에서 융통성 있게 역경에 대처하는 능력으로 보이며, 자기통제와 관련된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다[15]. 자아탄력성은 우울, 불안, 적응력 등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현재 국내 연구에서 사회참여활동경험이 노인의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편이고 더욱이 사회참여활동경험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역할을 규명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변수를 통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요인규명에 따라 차별화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성공적 노화를 증진시키는데 실천적 함의를 마련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거주 노인의 성공적 노화의 필요성에 의해 사회참여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간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노인의 사회참여활동경험은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사회참여활동경험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노인의 자아탄력성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고양시 3개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60세 이상 사회참여활동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민센터 자치주민 회장을 통해 통장에게 연락하여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각 지역을 방문하여 내용과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정확한 설문조사를 위해 교육받은 조사원 2인이 문장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문항을 읽어주는 형식을 취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었고, 예비조사 30명을 실시한 후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총 345부 중에 응답 내용이 미비한 설문지 44부를 제외한 301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2 연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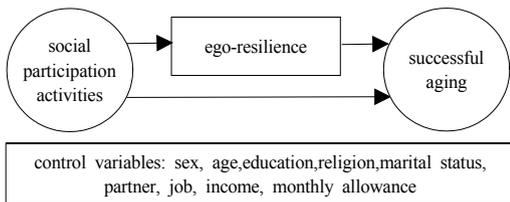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3 측정도구

2.3.1 종속변수 : 성공적 노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공적 노화 척도는 Rodin 과 McAvay[17]가 개발한 심리적 노화척도 6문항, Seong[18]이 사용한 사회적노화 5문항, Yoon[19]이 사용한 신체적 노화 7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범주는

4점 Likert척도를 사용했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모든 문항의 값을 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0 이었다.

2.3.2 독립변수 : 사회참여활동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참여활동 척도는 Ju[9]가 사용한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하위변수로는 경제참여활동(정기적·비정기적인일·노인일자리사업), 사회지원참여활동(자원봉사활동·가족돌봄활동), 사교친교참여활동(친목모임·동창회·향우회), 종교참여활동, 자기개발참여활동(교육학습활동·운동 및 문화활동)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문항의 점수는 ‘활동한다’, ‘안한다’ 로 표시하고, 빈도와 활동시간은 주관식으로 기입하였으며, 빈도와 활동시간을 곱하여 사회참여활동 경험률로 측정하였다.

2.3.3 매개변수 :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와 Kremen [14]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측정도구(Ego-resiliency scale)로 국내 연구자 Oh[20]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문항수는 14문항이며, 응답범주는 ‘4점 Likert식 척도이며, 모든 문항의 값을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신뢰도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회참여활동, 성공적노화 변수에 대한 실태는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수간의 수준차이는 t-검정 및 분산분석(ANOVA)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AMO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수간의 경로분석과, 적합지수(GFI, CFI, NFE, IFE, RMSEA, SRMR)를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고, 총 효과와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랩(bootstrap)방법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129명(42.9%), 여성이 172명(57.1%)으로 여성이 많았으며, 연령은 70대가 148명(49.2%), 60대가 91명(30.2%), 80대는 59명(19.6%)이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110명(3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학교 졸업이 68명(22.8%)이었다. 종교 있음이 220명(65.8%), 종교 없음이 81명(26.9%)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174명(57.8%), 사별이 86명(28.6%)였다. 동거인은 부부만 사는 경우가 109명(36.2%), 혼자 사는 경우가 76명(25.2%)이며, 결혼한 아들부부와 함께 사는 경우가 52명(17.3%), 미혼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37명(12.3%), 결혼한 딸 부부와 사는 경우가 11명(3.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부만 또는, 혼자 사는 경우가 증가한 대신 아들과 사는 비율이 상당히 적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301명중 227명(75.4%)이 직업이 없었고, 수입은 100만원 미만인 158명(52.5%)이었다, 한달 용돈은 20만원 미만이 63.4%였다.

3.2 일반적 특성과 성공적 노화 수준차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수준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이, 직업유무에 따라 성공적 노화의 하위변수인 심리적 노화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노년기에 직업이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3.3 일반적 특성과 사회참여활동 차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참여활동의 수준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결과를 보면 종교참여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성이 종교참여활동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종교유무에 따라 사회참여활동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경제참여활동, 사회지원참여활동과 자기개발활동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이 있는 경우에 경제참여활동, 사회지원참여활동과 자기개발활동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60대가 경제참여활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동거인의 경우는 ‘부부만 사는 경우’와 ‘결혼한 딸 부부와 함께 사는 경우’가 경제참여활동과 자기개발활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에 따른 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level of successful aging

Variable	Category	successful aging		psychological aging		society aging		physical aging	
		average	SD	average	SD	average	SD	average	SD
Gender	Male	2.73	.55	2.78	.65	2.77	.62	2.64	.58
	Female	2.65	.55	2.73	.64	2.78	.62	2.45	.67
	t	1.20		.68		-.18		2.63	
religion	none	2.64	.56	2.68	.61	2.77	.63	2.48	.65
	yes	2.70	.55	2.78	.65	2.78	.62	2.55	.63
	t	-.84		-1.28		-.13		-.77	
partner	not	2.64	.57	2.68	.72	2.77	.62	2.48	.67
	yes	2.72	.53	2.81	.57	2.78	.63	2.57	.61
	t	-1.15		-1.65		-.15		-1.11	
job	yes	2.79	.55	2.94	.61	2.79	.66	2.64	.59
	not	2.65	.55	2.70	.64	2.77	.61	2.50	.65
	t	1.83		2.83**		.26		1.67	
aged	60대(a)	2.71	.51	2.75	.59	2.80	.63	2.60	.60
	70대(b)	2.67	.54	2.76	.63	2.76	.57	2.50	.64
	80대 이상(c)	2.68	.62	2.75	.75	2.79	.73	2.51	.68
	F	.15		.02		.13		.72	
	Scheffe	-		-		-		-	
residents with	alone	2.55	.60	2.61	.75	2.66	.67	2.38	.69
	married couple	2.71	.58	2.76	.63	2.80	.66	2.56	.66
	with couple son	2.82	.47	2.89	.56	2.91	.53	2.66	.58
	with couple daughter	2.68	.51	2.76	.62	2.75	.63	2.54	.59
	With unmarried childr	2.71	.31	2.83	.36	2.76	.28	2.55	.48
	F	2.22		1.72		1.52		1.83	
Scheffe	-		-		-		-		

*p<.05, **p<.01, ***p<.001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level of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Variable	Category	economic participation		social support participation		religious participation		social participation communion		self-development activities	
		average	SD	average	SD	average	SD	average	SD	average	SD
Gender	Male	.47	.50	.42	.50	.41	.49	.41	.49	.52	.50
	Female	.49	.50	.37	.48	.59	.49	.52	.50	.53	.50
	t	-.27		.92		-3.17**		-1.84		-.27	
religion	None	.42	.50	.40	.49	.07	.26	.49	.50	.52	.50
	yes	.50	.50	.39	.49	.68	.47	.46	.50	.53	.50
	t	-1.31		.14		-10.96***		.46		-.20	
partner	not	.39	.49	.31	.47	.50	.50	.51	.50	.43	.50
	yes	.55	.50	.44	.50	.53	.50	.44	.50	.60	.49
	t	-2.88**		-2.28*		-.56		1.19		-2.85**	
job	yes	.86	.34	.50	.50	.59	.49	.46	.50	.64	.48
	not	.36	.48	.35	.48	.49	.50	.48	.50	.49	.50
	t	9.93***		2.22*		1.59		-.24		2.17*	
aged	60's(a)	.68	.47	.45	.50	.48	.50	.49	.50	.56	.50
	70's(b)	.41	.49	.37	.48	.53	.50	.45	.50	.55	.50
	80's over(c)	.35	.48	.34	.48	.52	.50	.50	.50	.44	.50
F	11.40***		1.15		.28		.39		1.37		
residents with	Scheffe	a>b,c		-		-		-		-	
	alone(a)	.38	.49	.28	.45	.54	.50	.49	.50	.36	.48
	married couple	.55	.50	.40	.49	.56	.50	.40	.49	.61	.49
	with couple son(c)	.40	.49	.46	.50	.44	.50	.48	.50	.54	.50
	with couple daughter(d)	.65	.48	.46	.51	.49	.51	.54	.51	.70	.46
	With unmarried childr(e)	.44	.51	.38	.50	.44	.51	.69	.48	.38	.50
	F	2.86*		1.58		.70		1.45		4.65***	
Scheffe	-		-		-		-		a<b,d		

*p<.05, **p<.01, ***p<.001

회참여활동의 수준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결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주요 변수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따라서 **Table 4**에서 왜도와 첨도 지수의 값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적인 왜도의 지수는 -.674~.459이고 첨도는 -2.010 ~ 1.051으로 정규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5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 분석으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는 사회참여활동 하위요인인 경제참여활동, 사회지원참여활동, 종교참여활동, 사교친교참여활동은 성공적 노화에 통계적으로 미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자기개발참여활동은 다른 변수에 비해 비교적 높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은 사회참여활동 하위요인인 경제참여활동, 사회지원참여활동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ain variables

Variable	Sub-variable	average	SD	Skewness	Kurtosis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economic participation	0.482	0.500	0.074	-2.008
	social support participation	0.389	0.488	0.459	-1.801
	religious participation	0.515	0.501	-0.060	-2.010
	social participation communion	0.472	0.500	0.114	-2.000
	self-development activities	0.528	0.500	-0.114	-2.000
successful aging	psychological aging	2.754	0.640	-0.516	0.387
	society aging	2.778	0.623	-0.674	1.051
	physical aging	2.530	0.637	-0.253	0.182
	ego-resilience	2.404	0.548	0.078	0.571

Table 4. Correlation relationship between main variables

	1.economic participation	2.social support participation	3.religious participation	4.social participation communion	5.self-development activities	6.ego resilience	7psychologic al aging	8.society aging	9.physical aging	10.successful aging
1	1									
2	.227**	1								
3	.084	.024	1							
4	-.032	.175**	.052	1						
5	.139*	.248**	.121*	.200**	1					
6	.175**	.208**	.148*	.132*	.206**	1				
7	.188**	.166**	.109	.172**	.307**	.444**	1			
8	.096	.157**	.017	.110	.189**	.416**	.623**	1		
9	.138*	.192**	.038	.084	.237**	.379**	.668**	.602**	1	
10	.163**	.198**	.063	.141*	.282**	.475**	.881**	.852**	.873**	1

* p<0.05, ** p<0.01. N=301

동, 종교참여활동, 사교친교참여활동 및 자기개발참여활동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성공적 노화의 하위요인인 심리적 노화, 사회적 노화, 신체적 노화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변수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거나 상관관계수 수치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구조모형 분석에 있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6. 구조모형 분석결과

3.6.1 구조모형의 적합도 평가결과

측정모형을 통해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제곱 통계량이 10.262, p=.001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고, 적합도 지수 GFI(0.990)와 비교 적합도 지수CFI(0.945), NFI(0.946), 증분 적합도 지수

IFI(0.951), 절대 적합 지수 RMSEA(0.176), SRMR(0.008)이 전체적으로 최적 모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구조모형이 자료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6.2 주요변수의 경로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주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자기개발참여활동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고, 경제참여활동, 사회지원참여활동, 종교참여활동, 사교친교참여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사회참여활동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경제참여활동, 사회지원참여활동, 종교참여활동 및 자기개발참여활동이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성공적 노

Table 5. path analysis of main variables

Variable Path	Coefficient	Standad factor	Path coefficients	Rejection rate	P
Ego resilience ← Economic Participation activities	.132	.120	.062	2.121	.034
Ego resilience ← social assistance participation activities	.149	.133	.065	2.275	.023
Ego resilience ← religious participation activities	.126	.115	.061	2.081	.037
Ego resilience ← social participation communion activities	.089	.081	.062	1.434	.151
Ego resilience ← self-development participation activities	.139	.126	.063	2.184	.029
successful aging ← Economic Participation activities	.065	.059	.057	1.139	.255
successful aging ← social assistance participation activities	.054	.048	.060	.904	.366
successful aging ← religious participation activities	.030	.028	.055	.549	.583
successful aging ← social participation communion activities	.051	.047	.056	.911	.362
successful aging ← self-development participation activities	.187	.170	.058	3.231	.001
successful aging ← Ego resilience	.419	.418	.052	8.033	***

***p<0.001

화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자체가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아탄력성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6.3 구조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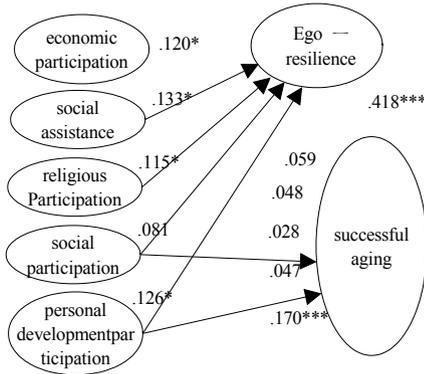


Fig. 2. Structural analysis model

3.6.4 측정변인간의 직, 간접효과 및 총효과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노인의 경제참여활동, 사회지원참여활동, 종교참여활동 및 자기개발참여활동은 자아탄력성에 대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경제참여활동, 사회지원참여활동 및 종교참여활동은 성공적 노화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간접효과가 유의수준 0.05하에 유의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자아탄력성은 완전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노인의 경제참

여활동, 사회지원참여활동 및 종교참여활동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에서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반면, 자기개발참여활동은 성공적 노화에 대한 직접효과가 유의수준 0.01하에 유의하였고, 간접효과 역시 유의수준 0.05하에 유의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자아탄력성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사회지원참여활동은 성공적 노화에 대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성공적 노화를 위한 실천적 함의를 마련하고 실천이론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3개동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301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과 성공적 노화의 수준차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직업유무에 따라 성공적 노화의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im[21]의 연구에서 “한국사회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생산적 활동으로서 신 노년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대표적 활동”이라 하였다. 이는 신 노년문화에 노인의 일자리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또한, Choe[22]의 연구에서 직업의 유무는 경제능력을 향상시키고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힌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Table 6.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path model

Variable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
Ego resilience ← Economic Participation activities	.120*	-	.120*
Ego resilience ← social assistance participation activity	.133*	-	.133*
Ego resilience ← religious participation activity	.115*	-	.115*
Ego resilience ← social participation communion	.081	-	.081
Ego resilience ← self-development activities	.126*	-	.126*
successful aging ← Economic Participation activities	.059	.055*	.114*
successful aging ← social assistance participation	.048	.062*	.110*
successful aging ← religious participation	.028	.053*	.081*
successful aging ← social participation communion	.047	.037	.084
successful aging ← self-development activities	.170**	.058*	.228**
successful aging ← Ego resilience	.418***	-	.418***

* p<0.05, ** p<0.01, ***p<0.001.

그 이유는 노인은 고령화와 노인만 사는 부부 세대의 증가로 인해 긴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직업에 대한 욕구가 강한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직업은 “인생참여”로서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반적 특성과 사회참여활동의 수준차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거유형에 따라 경제적 참여활동, 사회 지원참여활동, 자기개발참여활동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이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독거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 증가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사회참여활동 하위변수 5개요인중, 경제참여활동, 사회지원참여활동, 종교참여활동, 사교친교참여활동의 4개요인은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단, 자기개발참여활동은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Ju[9]의 연구에서 사회참여활동이 노년기 역할상실에 대체역할로서 부분적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양적인 활동수준은 삶의 질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자기개발참여활동이 유의미한 결과를 타나 낸 것은 질적 수준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개발참여활동의 3가지 요인(학습활동, 운동, 문화활동)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습활동과 성공적 노화 연구[23, 24, 25]에서는 학습활동을 통해 노인들이 잠재적 능력과 경험을 잘 활용함으로써 성공적 노화에 도달한다고 하였다. 또한 운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개인 간 집단 간의 접촉을 통하여 긍정적인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27].

넷째, 노인의 자아탄력성이 사회참여활동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장재원[4]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노인의 자아탄력성은 과정중심의 보호요인으로서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참여활동변수가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아탄력성을 통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자아탄력성이 증가시킬 수 있으며, 성공적 노화에 이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론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어야 하며, 노인의

특성에 맞게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회참여활동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직업이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냄에 따라 지역사회거주 노인의 일자리사업의 내실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즉 노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의 연령, 직업, 학력수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단순한 사회참여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기개발참여활동을 통해 건강과, 자기개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노인의 자아탄력성이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높일 수 있으며, 성공적 노화도 영향을 준다는 것은 개인의 행동과 정서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적응기제 중 하나로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반응하는 대처능력으로 해석된다[28]. 즉,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참여활동으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실천적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자를 고양시의 3개 동 주민으로 국한하여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는 노인의 특성에 맞는 사회참여 프로그램과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Elderly statistics , 2013.
- [2] S. O. Kang, "The impacts of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and Attitudes toward Older Persons on Preparation for Old Age", *University Dr's thesis, Venture Hoseo University Seoul, 2014.*
- [3] P. Pyeong, "A study of assessment on senior employment project under Aged Welfare Act and the System Improvement Plan", *Sunmoon university Dr's thesis, 2013.*
- [4] J. W. Chang,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in Successful Aging: Focused on stress and resilience", *Dacgu university Dr's thesis, 2014.*
- [5] E. M. Baek, "Impact of the Elderly's Social Recreation Activities on Successful Aging", *Kyongg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 [6] M. J. Lee,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uccessful Aging: Focused on the selection, optimization, compensation strategies", *Dacgu university Dr's thesis*, 2014.
- [7] J. W. An. "A predictive model for successful aging in community-dwelling elders", *Hanyang university Dr's thesis*, 2014.
- [8] Rowe. J. W, Kahn. R. L,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pp. 433-440, 1997.
DOI: <http://dx.doi.org/10.1093/geront/37.4.433>
- [9] K. H. Ju, "Elder's level of Social Participation and Quality of Life by Objective and Subjective indicator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39, pp. 231-264, 2011.
- [10] H. S. Kim. "An Effect of Elderly Volunteer Participation to a Successful Aging",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studies*, 27(2), pp. 419-442. 2013.
- [11] K. H. Jong, J. E. Yoon, "A Profile of the Productive Activities of Korean Older Persons and Economic Valuation", *Health and Welfare Forum*, 161: pp. 48-57, 2010.
- [12] J. H. Park, "Social, Psychological and Biological Determinants of Successful Aging", *Yeungnam university Dr's thesis*, 2006.
- [13] K. S.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ss-coping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resilience and self-integration in the Elderly", *Dankoo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14] Block, J. H., and Kramen, A. M. "IQ and resilience: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0: pp. 349-361, 199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70.2.349>
- [15] E. J. KO. "The Effect of Ego Resilienc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with different Attachment Style", *Korea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6.
- [16] H. K. Shin, J. Y. Chang, "The relationship amo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gender, job-seeking stree and mental health in college senior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2(4): pp. 815-827.
- [17] Rodin, J., & McAvay, G, "Determinants of change in perceived health in a longitudinal study of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7: pp. 373-384. 1992.
DOI: <http://dx.doi.org/10.1093/geronj/47.6.P373>
- [18] H. Y. Sung, "A Study of Successful Aging Model: Using the components of Rowe & Kahn", *Sungkyunkwan university Dr's thesis*, 2005.
- [19] J. Yoon. "Life Satisfaction Scale for Elderly: Revisited",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bstrct*, pp. 26-30.
- [20] M. J. Oh,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of the retired elderly people: The mediating Effects of Communication and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Chonnam university Dr's thesis*, 2010.
- [21] H. S. Sim, "Type of job creation projects for the elderly geomheom impact on successful aging", *Daejeo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 [22] H. G. Choe. "level predictors of successful aging community dwelling elderly," *Annals of social science*, 24(1): pp. 193-217, 2013.
- [23] H. G. Cho., "A study on successful aging: Through the Adult Learning of Korean Elderlies", *Yonsei University Dr's thesis*, 2002.
- [24] J. G. Kim, S. H. Han, "The Effect of Lifelong learning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uccessful Aging in the Elderly",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4(2): pp. 179-208, 2013.
- [25] Y. O. Sim, "Elderly senior art as a social activity analysis and activating participation", *Korea art education Review*. 49: PP. 257-280. 2014.
- [26] H. M. Ha.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innersion into everyday sports, reliance on the family and successful aging", *Kyung Hee university Dr's thesis*, 2013.
- [27] E. H. Kim, & S. K. Park, "Effects of Meditation and Combined Exercise on Body Composition and Functional Fitness of Successful Aging in the Older Women",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45: pp. 763-770, 2011.
- [28] Block, J. H., & Block, J,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pp. 39-101, 1980.

이 선 화(Sun-Hwa Lee)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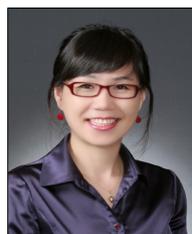
- 2009년 8월 :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13년 2월 ~ 현재 : 한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재학중

<관심분야>

사회복지, 노인복지, 실버산업, gerontology.

석 말 숙(Mal-Sook Suk)

[정회원]



- 200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임상사회복지, 노인장애인복지, 가족복지.